J. Internet Comput. Serv.
ISSN 1598-0170 (Print) / ISSN 2287-1136 (Online)
http://www.jics.or.kr
Copyright ⓒ 2018 KSII

여성의 SNS 이용이 대안 건강 행동에 미치는 영향: 건강신념모델에 기초한 대안 생리대 사용 의도를 중심으로☆

Effects of Women's SNS Uses on Alternative Health Management Behaviors: Application of Health Belief Model on the Adoption of Alternative Menstrual Products

김 총 혜[1] 조 재 희[1*]
Chong-Hye Kim Jaehee Cho

요 약

본 연구는 여성들의 SNS 이용이 대안 건강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했다. 특히 최근 많은 주목을 받았던 독성생리대와 대안생리대에 대한 SNS 정보추구가 대안생리대에 대한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다. 이를 위해, 건강신념모델을 기반으로 가설을 설정했고, 총 11개의 가설을 온라인 설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에 대한 경로분석을 통해 분석했다. 경로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SNS를 통해 수집된 독성생리대와 대안생리대에 대한 정보이용은 대안생리대에 대한 지각된 이익과 독성생리대에 대한 지각된 민감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효능감, 지각된 민감성, 지각된 이익, 그리고 지각된 장애는 대안생리대의 사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SNS 이용, 건강신념모델, 대안생리대 사용에 대한 자기효능감, 대안생리대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women's SNS use on their alternative behaviors of managing health. This study paid attention to how women's behaviors of seeking information about poisonous menstrual products and alternative menstrual products would impact their intention to use alternative menstrual products. Mainly based on health belief model, 11 hypotheses were created and tested through a path analysis of survey data. Results from the path analysis indicated that SNS information about menstrual product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erceived advantage of alternative menstrual products and perceived sensitivity of poisonous menstrual products. In addition, four main factors—self-efficacy, perceived sensitivity, perceived advantage, and perceived disadvantage—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women's intention to use alternative menstrual products.

Keywords: SNS Use, Health Belief Model, Self-Efficacy, Alternative Menstrual Products

1. 서 론

편리함만을 좇는 기술은 때로 재앙이 되기도 한다. 특히, 화학물질은 그 물질 자체보다는 물질들이 일으키는 화학적 반응이 문제가 되는데,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해가 될 수도 있는 것들을 간과하고 즉각적으로 이득을 주는 효과에 도취하기 쉽다. 예를 들면, 베트남 전쟁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미국은 고엽제에 대한 안전성을 엄밀히 점검하지 못했고, 고엽제 후유증이 가시화 된 이후에서야 피해자들을 규제하는 것이 논의된다[1]. 한국에서도 최근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가결되어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원인 규명과 피해보상 시스템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지만, 아직 미국의 집단소송법과 같은 형태에 이르지는 못했다[2].

피해에 대해 법적 보상이 원활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화학물질의 유해성이 주는 가장 큰 문제는 그 피해가 지속적이고 은밀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인지한다 하더라도 그 원인을 찾기가 힘들다. 화학물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조용하게 우리 생활 곳곳에 침투해 있으며,

1 School of Media and Communic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06974
* Corresponding author (jcho49@cau.ac.kr)
[Received 13 April 2018, Reviewed 23 April 2018(R2 28 May 2018), Accepted 12 June 2018]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Chung-Ang University Research Scholarship Grants in 2017.

http://dx.doi.org/10.7472/jksii.2018.19.4.83

그 후유증도 상당한 시간을 두고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삼성 LCD와 반도체 작업장의 근로자들이 연이어 혈액암에 걸린 사례와 같이, 명확한 피해자와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해물질과의 역학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까다롭다.

화학물질이 안전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은 이제 화학공포증(chemophobia, 혹은 케미포비아chemi-phobia)이라는 그림자를 드리웠다. 한국 사회는 가습기 살균제가 초래한 재앙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화학물질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에도, 한국 사회는 '살충제 계란', '독성 생리대'로 일컬어지는 사건들과 마주하면서 화학물질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었다[3].

특히 화학 생리대를 사용하면서 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는 경험은 2016년 여름부터 20~30대 여성이 주로 참여하는 다음 카페 '여성 시대'에서 공유되기 시작했고 점차 공론화 되었다. 그러나 인과관계가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채, 특정 브랜드 '릴리안'이 언론과 인터넷 커뮤니티에 지속적으로 거론되었다. 소비자들은 이것이 '릴리안 죽이기'라는 거대 음모가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가짐과 동시에 정부, 시민단체, 대학이 실시한 화학성분 검사 결과 자체를 믿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4]. 따라서 SNS(Social Network Service)에서는 수입 생리대나 면 생리대, 생리컵을 구입할 수 있는 URL이 소위 '좌표'라 불리면서 공유되기 시작했다.

화학공포증을 앓는 SNS 이용자들을 보면, SNS가 공포심과 불안을 확산시키거나 대안활동을 촉진시키는 통로로서 역할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해, SNS는 사적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을 제공하기도 하면서 공공적인 공간이라는 성격을 가졌다. 그러므로 SNS를 얼마나 활용하는지는 실제로 이용자의 건강신념(health belief)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건강에 대한 위험 인식을 확대시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안점을 찾고 공론화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SNS의 영향은 양면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강 예방 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많은 검증이 이루어졌던 건강신념모델(Health Belief Model: HBM)에 기초하여, 생리대에 대한 여성들의 대안 건강 행동과 SNS 이용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2.1 가임기 여성의 몸과 월경에 대한 사회의 통념

여성들은 남성과 다른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이슈는 한 여성의 개인적인 건강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음 세대와 직결되며 더 큰 맥락에서는 사회 조직 전체의 건강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길다는 사실에 의해서 임신과 출산이라는 이슈는 종종 '덜 중요한 것'이 되며 남성과 여성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는 연구에서조차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사망 원인은 고려되지 않는다[5]. 전 세계적으로 가임기 여성의 사망 원인 중에서 임신과 출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6%에 이르지만,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필요한 의료적 혜택이나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6].

이에 더해 여성의 신체를 그저 '임신 가능한' 몸으로 보는 편협한 시선 또한 여성의 신체에 대한 연구를 제한한다. 예를 들어, 옛 행정자치부가 만들었던 '출산지도'가 가임기 여성의 분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가임기 여성과 출산을 동격으로 여기는 한국 정부의 편협한 관점을 방증하고 있으며[7]. 이러한 관점은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신성한 것으로 찬양하는 반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동반되는 월경, 피임, 낙태 등의 문제는 은폐시킬 위험이 있다.

특히, 임신과 출산에 선행하는 월경에 대한 논의는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사소한 것'으로 치부되어 왔다. 일례로, 수지의 '릴리안' 생리대 광고에서부터 홍진영의 '마이보라' 피임약 광고까지 월경을 '그날'이라는 말로 위장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광고들은 월경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꺼리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다. 극단적으로는 월경 중인 여성을 일상생활에서 내쫓는 형식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네팔의 힌두문화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챠우파디(Chhaupadi)가 바로 그것이다[8]. 이런 전통에 의해 작은 움막에 고립된 여성들은 강간을 당하거나 야생동물에게 물리는 등의 사고에 취약하다[9].

이처럼 사회적으로 금기시되어 왔던 월경은, 2017년 5월 '깔창 생리대'에 대한 이슈가 확산되면서 생리대와 함께 공론화된 적이 있다. 즉 생리대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유한킴벌리의 소식에 네티즌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생리대가 없어서 신발 깔창을 사용한다는 저소득층 소녀들의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10]. '깔창 생리대'는 '독성 생리대'와는 맥락이 다른 이슈이지만, 생리대가 여성의 위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재조명해주었다. 또한 생리대 사용에는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생리대와 관련된 이슈는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을 안전하게 사용할 것인지, 일반적인 생리대를 대안할 수 있는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으며 그것을 구매할 능력이 있는지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여성의 (대안) 건강 행동으로서 (대안) 생리대 이용에 관심을 갖는다.

2.2 건강신념모델로 보는 여성의 헬스커뮤니케이션

건강신념모델(Health Belief Model: HBM)은 사람들이 건강 예방 행위와 프로그램을 채택할 것인지를 예측하고자 하는 데 주요목적을 두고 있다[11]. HBM은 개인의 심리학적 요소와 선택에 관심을 가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스크립트 이론과 구분될 수 있다. 사회적 스크립트 이론[12]은 문화, 대인관계, 내면심리가 만든 시나리오에 따라 개인이 행동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사회적 스크립트 이론은 여성들이 성과 관련된 행동들(예. 콘돔사용)에서 왜 남성과 다르게 행동하는지를 설명하는데 유용했다[13]. 하지만 개인은 이미 만들어진 시나리오대로 행동한다는 것이므로 HBM에 비해서 개인의 능동성이 덜 부각된다. 특히, 전적으로 여성에게 발현하는 질병이나 여성이 신경 써야 하는 위생에 관해서는 여성 한 개인이 건강 행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들은 자신의 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되는 건강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한다. 본 연구가 수집하려고 하는 대안 생리대의 사용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무엇이 몸에 더 바람직한가를 판단하는 데는 사회적 시선보다 건강에 대한 신념이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추정에서 본 연구는 HBM을 이론적 연구틀로 설정하였다.

HBM은 모델을 제창했던 로젠스톡(Rosenstock)이 그 기원을 밝히며 정교화를 꾀한 이후, 10년 동안 메타분석을 통해서 치열한 모델 검증이 이루어졌다[14,15]. 국내에서는 이병관와 그의 동료들(2014)이 메타분석을 통해서 HBM의 유용성을 증명 했다. 여성을 대상으로 HBM을 검증한 연구들에서는 빈혈예방, 가슴 자가 진단, 유방촬영검사, 자궁경부암 백신(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접종 등의 행위에 주목했다[16]. 이렇듯 꾸준히 연구에 활용되고 있는 HBM은 기대가치이론(expected-value theory)에 기초하고 있다. 즉, '건강에 대한 위협을 얼마나 지각하는지(perceived threat)'와 '건강 행동을 함으로써 어떠한 결과를 예상하는지(behavioral evaluation)'가 두 갈래의 큰 요인이 되어서 건강행위를 유도한다는 것이다[17]. 덧붙여서, 건강에 대한 위험 인식은 지각된 심각성(perceived severity)과 지각된 민감성[개연성](perceived susceptibility), 행위에 대한 평가는 지각된 이익(perceived benefit)과 지각된 장애(perceived barriers)로 각각 차원을 나눌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가 관심을 가지는 여성의 건강 행동은 정보추구 활동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들어 SNS는 정보 추구의 주요 채널로 간주되며,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된다. 퓨리서치(PEW Research Center)에서 보고하듯이, SNS는 가장 중요한 뉴스 원으로 인식되었고 특히 페이스북은 트위터보다 더 중요한 뉴스 원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NS를 통해 획득된 독성생리대와 대안생리대에 대한 정보가 여성들이 독성생리대와 대안생리대에 대해 갖는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즉 HBM의 주요 주장을 바탕으로, SNS정보이용이 독성생리대의 '심각성'과 '민감성'에 미치는 효과와 대안생리대의 지각된 '이익'과 '장애'에 대한 효과와 관련하여 네 가지 가설을 설정했다.

<가설 1> 독성생리대와 대안생리대에 대한 SNS정보이용은 독성생리대에 대한 지각된 심각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독성생리대와 대안생리대에 대한 SNS정보이용은 독성생리대에 대한 지각된 민감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독성생리대와 대안생리대에 대한 SNS정보이용은 대안생리대에 대한 지각된 이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독성생리대와 대안생리대에 대한 SNS정보이용은 대안생리대에 대한 지각된 장애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음으로, HBM은 질병에 대한 인식(지각된 심각성과 지각된 민감성)과 질병 예방 행위에 대한 인식(지각된 이익과 지각된 장애)이 질병 예방 행위 의도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에 대해 설명한다. 즉, HBM에 따르면 질병에 대한 심각성과 심각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예방행위에 대한 지각된 이익이 높고 장애가 낮을수록 예방행위 의도가 증가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BM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가설을 설정했다.

<가설 5> 독성생리대에 대한 지각된 심각성은 대안생리대 이용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독성생리대에 대한 지각된 민감성은 대안생리

대 이용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대안생리대에 대한 지각된 이익은 대안생리대 이용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대안생리대에 대한 지각된 장애는 대안생리대 이용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여성의 SNS 이용과 재전유

여성들의 미디어 이용은 생리대의 안전성과 위생에 관한 두 가지 이슈('깔창 생리대'와 '독성 생리대')를 촉발시켰다. SNS가 여성들이 이야기를 모을 수 있는 공간과 그것을 사회에 확성시킬 수 있는 수단을 모두 제공했기 때문이다. 청소년기에도 남성에 비해서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되는 여성[18]은 SNS에서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면서 거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소셜 미디어 분석을 담당하는 <Tracx>에서는 페이스 북의 경우에는 여성의 접속률이 우세하며, 밀레니얼과 X세대가 많은 것을 측정하기도 했다[19]. SNS는 사이버 공간을 여성이 재전유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되는 것이다.

게다가, SNS를 통한 사회 운동은 정치적 참여와 맥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 즉 SNS를 사용하는 것은 정치 참여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 SNS를 통해서 보다 비관습적인 집단행동이 가능하다[20]. 왜냐하면 공감대를 불러올 수 있는 또래와 정치적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이것은 곧 정치적 효능감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21]. 예를 들어, #MeToo 캠페인에서도 SNS와 효능감의 관계를 목격할 수 있다. 미국의 거물 영화제작자 하비 웨인스타인(Harvey Weinstein)의 성추행 사실과 그의 전력에 대한 고발에서 비롯된 #MeToo는 SNS를 통해 단일 사건을 넘어서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성폭력에 대항하는 고백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트위터의 리트윗 행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여성이 사회적 부조리함에 공분하고 이를 공유하려는 동기가 남성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밝히기도 했다[22]. 이미 한국 사회는 이러한 주장들을 뒷받침하는 현상들을 경험했다. 문학계에 만연한 성폭력을 #문학_내_성폭력이란 해시태그로 알리고자 했던 국내 움직임은 #MeToo와 그 기원이 같다고 할 수 있다[23].

여성주의 운동보다 더 미시적인 차원에서도 SNS가 여성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식업체 선정, 옷과 화장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SNS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24, 25, 26]. 또한, SNS에서 손쉽게 이용 가능한 '선물하기(gift-giving)'기능은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전략이 되기도 한다[27]. 즉, SNS는 사회적 관계망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이지만 SNS의 이용 자체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이는 SNS 이용자가 이미 구축된 SNS에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SNS를 능동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SNS 이용으로 유도된 결과에 자기효능감이 매개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의 연구는 SNS활용과 자기효능감(self-efficacy) 간의 정적 관계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독성생리대 및 대안생리대에 대한 SNS정보이용이 자기효능감에 매개되어 대안생리대 사용의도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의 주요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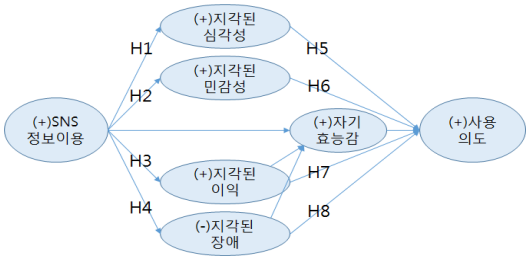
<가설 9> 독성생리대와 대안생리대에 대한 SNS정보이용이 대안생리대 사용의도에 미치는 효과는 대안생리대 사용에 대한 자기효능감에 의해 정적으로 매개될 것이다.

이에 더해, 본 연구는 대안생리대의 활용에 대한 자기효능감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대안생리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이와 같은 차원에서의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예측가능하다. 따라서 대안생리대의 이익에 대한 인식은 대안생리대 사용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정적인 관계를 맺으며, 대안생리대 사용에 장애를 인식하는 것은 곧 대안생리대에 대한 자기효능감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기효능감이 대안생리대에 대한 긍·부정적 인식과 대안생리대의 사용의도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매개효과를 아래의 두 가설을 통해 검증하고자 했다.

<가설 10> 대안생리대에 대한 지각된 이익이 대안생리대 사용의도에 미치는 효과는 대안생리대 사용에 대한 자기효능감에 의해 정적으로 매개될 것이다.

<가설 11> 대안생리대에 대한 지각된 장애가 대안생리대 사용의도에 미치는 효과는 대안생리대 사용에 대한 자기효능감에 의해 부적으로 매개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도출된 연구가설을 도식화하여 그림 1로 제시한다.



(Figure 1) Research Model

3. 연구 모델 및 연구방법 및 절차

3.1 표본 선정과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모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편의표집과 눈덩이표집 방법으로 설문 참여를 유도했다. 평균 연령이 35.1세(20세~60세)인 114명의 성인 여성이 설문에 참여했으며, 20-30대 여성이 76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학교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설문 참여자의 비율은 89.5%였다. 설문 참여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학생(24.6%)과 사무기술직(20.2%)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전문/자유직(15.8%)과 전업주부(15.8%)의 비율이 다음으로 높았다. 연평균 소득의 중위값은 “2000만원~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3.2 주요변인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3.2.1 생리대 이슈 관련 SNS 정보 이용

HBM을 채택하는 연구에서는 미디어의 이용에 관한 변인을 미디어 단서(media cue)라 이름 붙였다[28, 29].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미디어를 통해서 ( )에 대해서 듣거나 본 적 있습니까?”라는 물음을 던진다. 괄호 안에 들어가는 항목은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뉜다. 한 가지는 건강위험(예. 식중독)에 초점을 맞춘 것이며[28], 다른 한 가지는 건강행동(예. 결핵 예방 캠페인)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29].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건강위험에 대한 단서와 건강행동에 대한 단서 모두를 5점 척도로 물어보고자 했다: “SNS에서 ①독성 생리대/②면 생리대/③생리컵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자주 접하십니까?(M=2.94, SD=1.0, α=85).”

3.2.2 대안행동의도

대안 생리대의 이용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대표적인 대안생리대 두 가지(면 생리대, 생리컵)를 미리 소개하고 사용의도에 대해서 묻고자 했다. 여대생의 다이어트 의도에 대한 연구[30]의 문항에 덧붙여 5점 척도로 변인을 구성했다: “대안 생리대를 ①사용하고 싶다/②사용할 것이다/③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④사용할 계획이다(M=3.18, SD=.90, α=93).”

3.2.3 대안생리대 사용에 대한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특정 행동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신념을 의미하며[31], HBM뿐만 아니라 합리적 행위이론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들에서 주요 요인으로 간주되었다[32]. 본 연구를 위해서, 소셜미디어 효능감과 건강행동 효능감을 동시에 측정하였던 연구[33]를 참고하여 5점 척도로 대안생리대 사용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고자 했다: “대안 생리대 ①사용여부는 나에게 달려있다/②사용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③사용법을 배우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④사용에 쉽게 익숙해질 것이다.” 확인적 요인분석 과정에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한 요인적재치가 적합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추후 분석에서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세 문항을 분석에 이용하였다(M=3.15, SD=.93, α=87).

3.2.4 건강신념모델 변인

HBM은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되어 왔고 여성의 건강행동과 관련해서 챔피언은 C(R)HBMS (Champion’s (Revised) Health Belief Model Scale)이라는 측정도구를 개발했으며[34], 이는 다양한 문화권의 여성들(예. 터키 여성들의 유방암 검사, 요르단 여성들의 유방암 검사와 자가 진단)에 적용되기도 했다[35]. CHBMS을 활용한 측정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수정하여 아래의 네 가지 주요 변인을 5점 척도로 측정하고자 했다[36].

(1) 지각된 심각성(perceived severity)

독성 생리대에 대한 지각된 심각성 “①독성 생리대는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것이다, ②내가 독성 생리대를 사용한다면, 나의 건강에 큰 피해가 있을 것이다[37].” “③독성 생리대의 사용은 나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M=4.0, SD=.71, α=95).”로 측정하였다.

(2) 지각된 민감성(perceived susceptibility)

독성 생리대에 노출될 개연성을 의미하는 지각된 민감

성은 항목은 “①독성 생리대에 노출되어 있다, ②독성 생리대를 사용할까 두렵다, ③생리대 사용에 민감해진다 (*M*=3.59, *SD*=.79, α=74).”로 구성하였다.

(3) 지각된 이익(perceived benefit)

대안 생리대를 통해 획득될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을 의미하는 지각된 이익은 “대안 생리대를 사용하면, ①독성 화학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줄 것이다/②독성 생리대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③사회 전반적인 여성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M*=3.53, *SD*=.77, α=84).”로 측정하였다.

(4) 지각된 장애(perceived barri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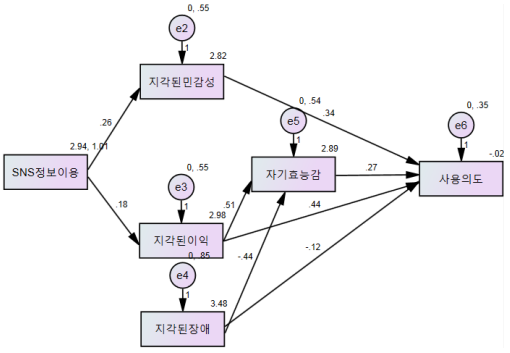
대안 생리대를 사용할 때의 장애를 의미하는 지각된 장애를 “대안 생리대를 사용하는 것은 ①귀찮은 일이다/②시간을 뺏는다/③까다롭다(*M*=3.48, *SD*=.93, α=88).”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채택된 총 일곱 변인들의 측정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했다. 후와 벤틀러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총 세 가지 모델적합도 지수(CFI, IFI, SRMR)를 검토했다[38]. CFA 결과는 총 7가지 변인으로 이루어진 모델의 적합도를 지지했다(χ^2(*df*=188)=291.6, *p*<.001, CFI=.94, IFI=.94, SRMR=.07).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각 요인들을 구성하는 복수의 항목에 대한 평균값을 경로분석에 활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4. 연구결과

각 가설에 대한 검증에 앞서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7개의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했다. 상관분석결과, 나이가 많을수록 SNS 정보이용이 감소했으나 (*r*=-.341, *p*<.001), 학력은 SNS 정보이용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r*=.212, *p*<.05). 이에 더해, 지각된 장애는 연령과 부적으로(*r*=-.208, *p*<.05), 학력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졌다(*r*=.358, *p*<.001).

연구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활용했으며, CFA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모델적합도 지수(CFI, IFI, SRMR)를 검토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를 제거한 최종 모델은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로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세 가지 모델 적합지수 모두 해당 모델의 적합도를 지지했다(χ^2(*df*=7)=24.9, *p*<.001, CFI=.90, IFI=.90, SRMR=.10).



(Figure 2) Results from Path Analysis

(Table 1) Results from Path Analysis

IV	DV	β	t	P
SNS정보이용	지각된이익	.19	2.65	.008
	지각된민감성	.26	3.77	<.001
지각된이익	자기효능감	.51	5.61	<.001
지각된장애		-.44	-5.85	<.001
자기효능감	사용의도	.27	3.48	<.001
지각된민감성		.34	4.79	<.001
지각된이익		.44	5.30	<.001
지각된장애		-.12	-1.70	.09

본 연구에서는 SNS에서 얻는 생리대 정보가 독성 생리대와 대안생리대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SNS정보이용이 네 가지 주요변인(지각된 이익, 지각된 장애,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민감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검증했다. 그림 2와 표 1이 보여주듯이, SNS정보이용은 대안생리대의 지각된 이익(β=.19, *p*=.008)과 독성생리대의 지각된 민감성(β=.26, *p*<.001)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효과를 미쳤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가설 2>와 <가설 3>는 채택된 반면, <가설 1>과 <가설 4>는 기각되었다. SNS 정보이용은 11.2%의 지각된 민감성의 분산(R^2=.11)과 약 6%의 지각된 이익의 분산을 설명했다(R^2=.06).

다음으로, 본 연구는 HBM의 네 가지 주요 변인들이 대안 생리대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네 가지 가설을 설정했다. 그림 2에서의 경로분석 결과가 보여주듯이, 독성생리대에 대한 지각된 민감성(β=.34, *p*<.001)은 사용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대안 생리대의 지각된 이익(β=.44, *p*<.001) 또한 대안 생리대의 사용의도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미쳤다. 대안 생리대 활용에 대한 지각된 장애(β=-.12, *p*=.09) 대안 생리대의 사용의도

를 제한적이나마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네 가지 가설 중 <가설 6>, <가설 7>, <가설 8>은 채택된 반면, <가설 5>는 기각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대안생리대 사용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SNS정보이용 및 대안생리대에 대한 두 가지 변인과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라는 세 가지 가설을 설정했다. 우선 표 1에서 보여주듯이, 대안생리대 활용에 대한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대안생리대에 대한 지각된 이익(β=.51, p<.001)과 지각된 장애(β=-.44, p<.001)들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종 경로 모델에 대해 부트스트래핑(95%의 신뢰도, 500회전)을 실시함으로써 두 변인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했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대안생리대의 이익(하위수준 간접효과=.01, 상위수준 간접효과=.26, p=.03)과 장애(하위수준 간접효과=-.01, 상위수준 간접효과=-.22, p=.03) 모두 대안생리대 사용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통해 유의미한 수준에서 대안생리대 이용의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0>와 <가설 11>은 채택되었으며, SNS정보이용이 대안생리대 사용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대안생리대 사용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매개할 것이라고 <가설 9>는 기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분석을 통해 대안생리대 사용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약 37%의 분산이 대안생리대의 지각된 이익과 장애에 의해 설명되었고(R^2=.37), 대안생리대 사용의도의 분산은 지각된 민감성, 지각된 이익, 지각된 장애, 그리고 자기효능감에 의해 51%가 설명되었다(R^2=.51).

5. 논 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 몸에 유해하다고 알려진 성분을 피하거나 대체물을 찾는 것도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 된다. 독성생리대 논란이 일자,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화학 생리대를 꺼리고 대안 생리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생리대는 여성의 건강과 위생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월경 활동 자체가 연구 대상으로서 인기를 끌지는 못했다. 대안 생리대는 더욱더 생소한 연구주제이며, 여성들은 보통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위생용품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교육 받지 못한다. 따라서 여성들은 사회가 적극적으로 교육해주지 않는 이러한 정보를 SNS를 통해 얻기도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HBM을 바탕으로 SNS에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대안생리대의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했다.

우선, <가설 1>과 <가설 5>은 대안생리대 사용의도에 영향을 끼치는 내생변인으로서 지각된 심각성을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SNS 정보 이용이 독성 생리대의 피해를 심각하게 인식하도록 하고, 이것이 대안생리대의 사용의도를 높인다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이것은 <가설 2>와 <가설 6>에서 검증하고자 했던 내생변인인 지각된 민감성의 분석 결과와 대조된다. SNS 정보의 이용은 지각된 민감성을 높이고 대안생리대 사용에 대한 의도의 증가까지 이어진 것이다.

지각된 심각성과 지각된 민감성은 모두 위험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는 변인이다. 특히 심각성은 독성생리대로부터 유발된 피해가 본인의 건강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물음으로 측정되므로 개인적인 수준의 건강과 관련된다. 이러한 경우 독성생리대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적인 피해로 간주되고, 일반 화학 생리대를 사용하는 것도 개인의 선택일 뿐이라고 위험에 대한 인식이 축소될 수 있다. 개인의 건강 문제는 국가 테러나 환경 문제에 비해서 사회적인 공유 수준이 낮고, 책임도 개인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어서 위험에 대한 심각성이 낮은 것으로 분류되기도 한다[39].

또한 TV 시청자를 대상으로 했던 연구에 따르면, 위험 보도를 접한 시청자들은 잘 알고 있는 질병보다 잘 모르는 질병에 의한 피해를 더 크게 인지하였다[40]. 일상생활에 만연한 위험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심각성 인식이 약화되는 것이다. 독성생리대가 일으킨 파문으로 인해서 생리대에 대한 관여도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전통적으로 생리대는 관여도가 높지 않은 소비제품이다. 대형마트의 PB(자체브래드)제품은 관여도가 적은 제품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2014년 초 홈플러스의 PB 생리대는 물티슈, 롤 휴지, 건전지에이어서 네 번째로 큰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는 점[41]은 생리대에 대한 구매 관여도가 낮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 그러므로 독성 생리대에 대한 정보들도 일종의 일상 용품 리뷰로 인식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음으로는 <가설 3>과 <가설 7>이 지지되면서 초점을 두었던 지각된 이익이라는 변인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SNS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대안 생리대의 지각된 이익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대안생리대를 사용하는 의도까지 이끌어낸다 것이 증명된 것이다. SNS에서는 다양한 생리대의 종류를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생한 사용 후기를 통한 간접경험이 가능하다. 실

제로 대안 생리대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만족감이 그 정보를 접한 SNS 이용자들에게 전염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대안 생리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사용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지각된 장애 변인을 중심으로 하는 가설 검증에서는 <가설 4>가 기각되고 <가설 8>만 지지되었다. 따라서 대안 생리대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덜 인식할수록 대안 생리대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지만, SNS에서 더 많은 정보를 접한다고 해서 대안 생리대의 불편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가 단순 노출의 수준으로 SNS의 정보의 양을 측정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대안생리대를 사용해보고자 적극적으로 정보를 추구한 사람들에 비해서 대안생리대 관련 정보에 단순 노출된 사람들은 획득한 정보의 양이 아니라 질에서 차이가 날 것이다. 더군다나 대안생리대에 대한 불편한 정보는 장애에 대한 인식을 낮추기는 커녕 오히려 더 높일 수 있다. 구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다수의 연구들은 부정적인 정보는 긍정적인 정보에 비해서 사람들의 태도를 결정하는데 더 위력적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42, 43].

마지막으로는 대안생리대 사용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점으로 가설을 구성하여, <가설 9>를 제외한 <가설 10>과 <가설 11>이 지지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HBM에 자기효능감을 추가한 초기 연구[44]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대안생리대의 이익을 크게 인식하거나, 장애를 낮게 인식하는 경우에 그 여성은 스스로 대안생리대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여긴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대안 생리대 사용의도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다만, SNS에서 독성생리대나 대안생리대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했다고 해서 대안생리대를 사용하는 것이 더 쉽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가설 4>가 기각된 이유와 비슷하게, 대안 생리대의 부정적인 부분을 SNS에서 접하고 자기효능감이 떨어지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분명한 것은 SNS에는 건강에 유익한 정보도 있지만 건강의 위협에 관한 내용이 함께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서 본 연구가 설계했던 SNS 정보 이용으로 지각된 장애가 낮아질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고, 반대로 지각된 장애가 높아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독성생리대 논란에 대처하는 여성 SNS 이용자들의 반응을 고려했을 때, 이들이 지나친 공포심으로 인해 심각성에 빠지기 보다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잠재적인 이익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6. 결론 및 제언

여성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꾸준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국내 연구에서 생리대라는 연구대상은 상대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으며, 미디어와 관련 연구 영역에서는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논의들은 독성생리대라는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여성들이 SNS 공간을 활용하여 대안생리대라는 대안점을 찾는 방식으로 건강 활동을 추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본 연구는 화학생리대에 대한 대안으로 면 생리대와 생리컵을 제시했으나, 많은 여성들이 생리대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유기농 생리대를 사용하거나, 화학 생리대와 면 생리대를 병행해서 사용한다. 더군다나 대안생리대 선택에는 경제적 요인이 작동하므로 후속 연구는 보다 다양한 대안생리대의 유형과 경제적 이득이라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리대의 안전성과 문화적 차이에 대한 고려도 요구된다. 즉 화학생리대를 쉽게 구할 수 없는 개발도상국에서는 관리가 어려운 면 생리대가 오히려 비위생적이며 상대적으로 화학생리대가 보다 위생적이라고 인식된다. 따라서 생리대 자체에 대한 문화적 차이와 생리대의 안전성을 결정하는 기술 및 환경적 맥락에 대해 숙고하여 후속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본 연구는 비무작위 편의표집법을 활용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보다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는 대표성 높은 표본을 통해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

[1] J. Byun, “The functions and limitations of the US class actions: an historical analysis”, Study on The American Constitution, Vol.25, No.3, pp.135-169, 2014.

[2] D. G. Han, “Rapid relief in the event of massive consumer damage.. A class action bill”, Hangan Times, 2017.11.30. http://www.hg-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6755

[3] Y. J. Kang, “chemophobia and safe society”, Ecomedia,

2017.11.28.
http://www.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87908017022

[4] E. C. Jang, "[exclusive] The mystery of internet post about "Lilian affair"", Bizhankook, 2017.11.09.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14338

[5] Y. M. Kim, "The health status of Korean men and women: Life expectancy, death rate and self-rated health statu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Vol. 235, pp.15-24, 2016.

[6] World Health Organization, Women and Health: today's evidence tomorrow's agend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9.

[7] DH Park, "[Generation of low birthrate] What is a solution of world's lowest birth rate?...need to start with gender equality", News1, 2017.08.30.
http://news1.kr/articles/?3087520

[8] R. Bhandaree, B. Pandey, M. Rajak, & P. Pantha, "Chhaupadi: Victimizing women of Nepal", 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South Asia Society of Criminology and Victimology, pp.141-143, 2013.

[9] C. Leaper, "Exposing the shocking tradition of Chhaupadi, where women on their period are banned from public places", Marie Clarie, 2014.07.24.
http://www.marieclaire.co.uk/reports/wateraid-tobeagirl-exposing-chhaupadi-traditions-where-women-on-their-period-are-banned-from-public-places-59388#b8d2wzBcczRMupRo.99

[10] H. J. Park, "Tears of the girls who can not afford sanitary pads", Kukminilbo, 2016.05.26.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647728&code=61121111&cp=nv

[11] S. B. Cho, D. S. Kwon and M. Lee, "A study on the information security behavior of corporations using health belief model",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Vol.36, No.2, pp.241-263, 2014.

[12] W. Simon and J. H. Gagnon, "Sexual scripts: Permanence and change", Archives of Sexual Behavior, Vol.15, pp.97-120, 1986.
http://dx.doi.org/10.4324/9780203205815_chapter_2

[13] M. W. Wiederman, "The gendered nature of sexual scripts", The Family Journal, Vol.13, No.4, pp.496-502, 2005. http://dx.doi.org/10.1177/1066480705278729

[14] N. K. Janz and M. H. Becker, "The health belief model: a decade later", Health Education Quarterly, vol.11, No.1, pp.1-47, 1984.
http://dx.doi.org/10.1177/109019818401100101

[15] I. M. Rosenstock, "Historical origins of the Health Belief Model", Health Education Monographs, Vol.2, No.4, pp.328-335, 1974.
http://dx.doi.org/10.1177/109019817400200403

[16] L. T. Austin, F. Ahmad, M. J. McNally and D. E. Stewart, "Breast and cervical cancer screening in Hispanic women: a literature review using the health belief model.", Women's Health Issues, Vol.12, No.3, pp.122-128, 2002.
http://dx.doi.org/10.1016/S1049-3867(02)00132-9

[17] B. Lee, Y. Sohn, S. Lee, M. Yoon, M. Kim and C. Kim, "An efficacy of social cognitive theory to predict health behavior", Journal of Public Relations Research, Vol.18, No.2, pp.163-206, 2014.

[18] M. V. Mestre, P. Samper, M. D. Frías and A. M. Tur, "Are women more empathetic than men? A longitudinal study in adolescence", The Spanish Journal of psychology, Vol.12, No.1, pp.76-83, 2009.
http://dx.doi.org/10.1017/S1138741600001499

[19] R. Showers, "2017 Social Media Demographics: What You Need to Know [Infographic]", Tracx, 2017.03.03.
https://www.tracx.com/resources/blog/social-media-demographics-2017-marketers/

[20] K. J. Song, J. B. Yim and W. Y. Chang, "How does SNS change politic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6, No.7, pp.154-167, 2016.

[21] N. Jung, "The influence of social media on political participation", Journal of Social Science , Vol.24, No.2, pp.273-294, 2013.

[22] N. Park and J. Jeong, "Who retweet and why?", Journal of Media Economics & Culture, Vol.9, No.3, pp.95-132, 2011.

[23] Y. M. Jung, "If you empathize, write it on "#"", Chosunmedia, 2017.11.2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27/2017102702051.html

[24] S. I. Rha and M. J. Lee, "Brand positive attitudes and purchase intention based on clothing consumption value of women in their 20s", Journal of the Korea Fashion

& Costume Design Association 2nd Conference, pp.27-29, 2016.

[25] Y. J. Sung, J. Y. Sung, S. H. Kim, Y. Jung and J. Y. Yoon, "A study on the dependency and satisfaction of SNS information on restaurants", Journal of the East Asian Society of Dietary Life Conference, p.139, 2016.

[26] L. Cai, H. S. Lee and M. J. Gawg, "The experiences and complain behaviors of counterfeit Korean cosmetics among Chinese women consumers", Journal of Consumer Policy Studies, Vol.47, No.1, pp.117-145, 2016.

[27] Y. H. Joo, Y. Kim and S. J. Yang, "Valuing customers for social network service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64, No.11, pp.1239-1244, 2011. http://dx.doi.org/10.1016/j.jbusres.2011.06.030

[28] J. A. Hanson and J. A. Benedict, "Use of the Health Belief Model to examine older adults' food-handling behaviors", Journal of Nutrition Education and Behavior, Vol.34, pp. S25-S30, 2002. http://dx.doi.org/10.1016/S1499-4046(06)60308-4

[29] H. J. Paek, K. A. Shin and B. Lee, "Exploring cues to action in Health Belief Model", Journal of Practical Research in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Vol.10, No.1, pp.219-243, 2017.

[30] H. S. Oh, "Factors affecting on body dissatisfaction and diet intention among college female students - focused on interpersonal influences", Media and Social Norms, Vol.17, No.3, pp.65-97, 2015.

[31] A. Bandur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32] K. Glanz, B. K. Rimer and K. Viswanath, (Eds.) (4th). (2008). Health behavior and health educati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CA: John Wiley & Sons.

[33] S. Yoo, "A Study on the Effect Model of Health Communication Campaigns on Social Media", The Graduate School of Sogang University, a doctoral degree, 2012.

[34] V. L. Champion, "Revised susceptibility, benefits, and barriers scale for mammography screening.", Research in nursing & health, Vol.22, No.4, pp.341-348, 1999. http://dx.doi.org/10.1002/(SICI)1098-240X(199908)22:4<341::AID-NUR8>3.0.CO;2-P

[35] S. Gözüm and I. Aydin, "Validation evidence for Turkish adaptation of Champion's health belief model scales", Cancer Nursing, Vol.27, No.6, pp.491-498, 2004.

[36] K. H. Han, "The impact of health belief components on the effectiveness of women's cancer prevention campaigns: a cross-national examination towards Korean and Japanese women", Korean Society for Advertising Education, Vol.13, No.2, pp.377-413, 2011.

[37] A. Park, "The influence of cervical cancer, HPV knowledge and health beliefs on HPV vaccination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11, pp.7708-7717, 2015.

[38] L. T. Hu and P. M. Bentler,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Vol.6, No.1, pp. 1-55, 1999. http://dx.doi.org/10.1080/10705519909540118

[39] S. Hong, "Publicness in risk society : Focusing on leakages of hydrofluoric acid and radioactivity", The Journal of Korean Policy Studies, Vol.13, No.2, pp.117-135, 2013.

[40] H. Woo, "Re-exploring the resonance effects of the cultivation theory : Focusing on television news effects on the risk perception",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50, No.6, pp.254-276, 2006.

[41] I. S. Jang, "Now wet tissues are also PB products... Popular for 'practicability' with cheap price", Asiae, 2014.05.15.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51509232744451

[42] G. Y. Kim, H. J. Kim and J. S. Jang, "Research articles : Differences of positive WOM and negative WOM effects in on-line tourism information" Journal of Tourism Sciences, Vol.36, No.2, pp.261-279, 2012.

[43] M. G. Weinberger, C. T. Allen and W. R. Dillon, "The impact of negative marketing communications: The consumers union/Chrysler controversy", Journal of Advertising (Pre-1986), Vol.10 No.4, pp.20-47, 1981.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208459917?accountid=10113

[44] I. M. Rosenstock, V. J. Strecher and M. H. Becker, "Social learning theory and the health belief model", Health Education Quarterly, Vol.15, No.2, pp.175-183, 1988.
http://dx.doi.org/10.1177/109019818801500203

◐ 저 자 소 개 ◑

김 총 혜(Chonghye Kim)
2013년 건국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의류학사) 커뮤니케이션학과(문학사)
2017년 중앙대학교 대학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언론학석사)
2017년~현재 중앙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 휴먼커뮤니케이션
E-mail : ferretlove@nate.com

조 재 희 (Jaehee Cho)
2003년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학사
2006년 텍사스 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 석사
2011년 텍사스 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
2011년~2013년 UNC- Charlotte, Department of Communication Studies, Assistant Professor
2013년~현재 중앙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부 부교수
관심분야: 뉴미디어 수용
E-mail: jcho49@cau.ac.kr